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진로교육 인식과 실태 연구

이 신 영*

대구광명학교, 대구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

이 연구는 전국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여 진로교육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을 설문조사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진로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맹학생의 경우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다'가, 저시력학생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남학생은 '직업정보 탐색', 여학생은 '진로계획 수립'을, 중학생은 '직업정보 탐색', 고등학생은 '진학정보 탐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직업수행에서 남녀학생 모두 '능력과 적성'을 중요한 요소로, '주기적인 상담'을 남녀학생과 중등학생 모두 효과적인 진로교육 자료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진로교육에 대한 실태에서 중학생은 '부모님과의 진로상담'이, 고등학생은 '친구들 동료학생들과의 대화'가 자신의 장래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으로 맹학생은 '진로와 직업교과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한다'가, 저시력학생은 '진로교육 시수를 늘려 개별적인 지도까지 해준다'가 가장 높았고, 남녀학생이 모두 '개인 대면 상담'을 진로관련 상담으로 가장 선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 진로교육

* 제1저자(sylee0208@hanmail.net)

** 교신저자(gyunlee@daegu.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 성인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받는 교육 중 하나가 바로 진로교육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인간에게 사회적 자기실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하여 생산과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준비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교육이란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교육이나 직업교육과는 구분되는 넓은 의미의 직업교육이며 직업적성교육으로서 누구나 자신의 소질·적성·흥미·능력에 알맞게 지도하여 선택한 진학이나 직업 선택에서 만족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활동(김충기, 1991)으로서 한마디로 의미 있는 직업 또는 직업 가치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따라서 취학 전에 시작되어 전환교육의 일환으로 평생 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진로교육의 목표는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교육과학기술부, 2012)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관한 국가적 과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2009년 개정교육과정 등 포함 시키는 등 점차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활동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에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는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현재 4,550명인 진로상담 교사를 올해 5,400명으로 늘려 전국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를 100%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동된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통해 진로심리검사를 강화하며 앞으로는 학생들의 진로체험도 의무화된다. 또한 진로체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각각 한번 이상은 지자체나 교육청,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체험에 참여시킨다(동아일보, 2013). 이와 같이 중·고등학교의 일반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은 점차 많은 정의와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인식을 갖추어 가고 있다.

특수교육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9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법전편찬회, 2013). 그리고 장애아를 위한 진로교육은 2012년 7월 교육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동으로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과로 2011년 0.44%에서 2012년 11월 0.94%인 0.5% 증가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그러나 이에 대한 조사만족도에서는 절반가량만이 만족을 표시하여 취업률과 동시에 진로결정의 과정에 대한 질적 향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제기되었다.

시각장애아교육 분야에서의 진로교육은 1913년 4월 제생원 맹아부에서 안마·마사지·지압 등의 직업교육을 시작한 이래, 일부 시각장애학교에서 소수의 전화교환 및 피아노 조율 등의 직업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2004년 3월 처음으로 서울맹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인문과정 개설 이전, 오늘까지 거의 100년 동안 이료교육(理療教育)만을 실시해 오고 있어, 시각장애학교의 진로·직업교육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 이는 안마사라는 직업이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타 직업에 비해 많은 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각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의 능력·적성·흥미·가치관·성격적 특성 등을 고려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일한 직업교육인 이료교육도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어 한층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1995년부터 국가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시행된 대학 특례입학제도 이후, 시각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자 수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전국 시각장애학교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과령 중도 시각장애학생을 제외한, 적령학생의 약 70~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능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전공 선택을 위해 향후 좀 더 개방적으로 각자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의 세계에서 개인적 행복과 개인적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직업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교육과 관련한 일반교육에서는 일반학교 중등학생의 진로교육이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2000년 이후에만 해도 원남희(2013)외 19편의 논문(참고문헌 참조)이 있으나, 시각장애교육에서는 시각장애학생들의 진로인식 연구(박홍식, 2006; 이승철, 2005; 이완우, 2010) 등의 소수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시각장애학교의 중등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과 인식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시각장애

학생의 진로선택의 다양화와 이들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인성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의 성별, 과정별, 시력 정도별, 시력 손상시기별 등의 배경변인별로 진로교육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시각장애학교의 진로교육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의 배경변인별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밝힌다.
- 둘째,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의 배경변인별 진로교육에 대한 실태를 밝힌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12개 시각장애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중, 설문 응답하기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제외한 단순 시각장애학생 22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에 대한 배경변인별 연구 대상자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분포

배경변인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47	65.3
	여	78	34.7
과정별	중학생	71	31.6
	고등학생	154	68.4
시력 정도별	맹	91	40.4
	저시력	134	59.6
시력 손상시기별	선천성	148	65.8
	후천성	77	34.2
전 체		225	100

<표 1>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전체의 65.3%, 여학생은 34.7%를, 과정보로는 중학생은 31.6%, 고등학생이 68.4%를 차지하였다. 시력정도별로는 맹학생이 40.4%, 저시력학생이 59.6%로, 시력 손상시기별로는 선천성이 65.8%, 후천성이 34.2%를 차지했다.

이 연구에서 시력정도는 맹학생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로, 저시력학생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상 0.3미만을 대상으로 했다(국립특수교육원, 1999). 또한 장애발생시기는 시각심상(visual image)의 유무에 따라 5세 이전의 시각장애를 선천성, 5세 이후를 후천성으로 간주했다(이해균, 2006).

2. 연구 도구

본 연구 도구는 진로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로 박은아(2005), 이계순(2010), 이현정(1998), 조정미(2009), 차복순(2009) 등의 일반학교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에 대한 설문 내용을 참고했다.

최종 설문지 작성은 지도교수와 시각장애학교 진로 담당교사 2명과 함께 시각장애학생에게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후, 시각장애학생 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했다. 이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도구의 내용

하위요인	내 용	문항 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진로교육의 목적, 내용에서 중요점, 중요요소, 효율적인 시수, 효과적 시기, 담당교사의 효율성, 효율적 자료	7
진로교육에 대한 실태	장래희망의 종류, 장래희망에 영향을 미친 요소, 정보경로, 담당교사의 실태, 운영의 문제점, 효율성에 대한 방안, 상담유형의 선택	7
전 체		14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시각장애학교 담당교사의 동의를 얻은 후, 시각장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인편, 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했다.

설문지는 총 245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233부(회수율 95.1%)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 본 연구에 사용하기 부적절한 8부를 제외한 전체 225부만을 최종적으로 사용했다.

4.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했으며,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성별, 과정별, 시력정도별, 시력손상시기별 등 배경변인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를 사용했다. 또한 배경변인별 응답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1) 진로교육의 목적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 진로교육의 중요 목적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진로교육의 목적 N(%)

배경변인 \ 항목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성별	남	38(25.9)	33(22.5)	50(34.0)	13(8.8)	13(8.8)	147(100)	5.111
	여	23(29.5)	26(33.3)	19(24.4)	4(5.1)	6(7.7)	78(100)	
과정별	중	17(23.9)	22(31.0)	20(28.2)	6(8.5)	6(8.5)	65(100)	1.603
	고등	44(28.6)	37(24.0)	49(31.8)	11(7.1)	13(8.4)	141	
시력 정도별	맹	22(24.2)	21(23.1)	39(42.9)	6(6.6)	3(3.3)	88	13.499**
	저시력	39(29.1)	38(28.4)	30(22.4)	11(8.2)	16(11.9)	118	
손상 시기별	선천성	38(25.7)	39(26.4)	49(33.0)	12(8.1)	10(6.8)	138	2.805
	후천성	23(29.9)	20(26.0)	20(26.0)	5(6.4)	9(11.7)	68(100)	
전 체		61(27.1)	59(26.2)	69(30.7)	17(7.6)	19(8.4)	225(100)	

**p<.01

- 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 ② 앞으로 장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 ③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다.
- ④ 미래의 유망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
- ⑤ 진로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위의 <표 3>을 보면, 진로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다(30.7%)’가 가장 높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27.1%)’, ‘앞으로 장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26.2%)’, ‘진로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8.4%)’, ‘미래의 유망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시력 정도별에서 맹학생의 경우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다(42.9%)’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24.2%)’, ‘앞으로 장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2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시력학생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29.1%)’, ‘앞으로 장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28.4%)’,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다(22.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 성별, 과정별, 손상시기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계순, 2010)와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다’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시각장애학생이나 일반학생들 모두가 직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진로가 일생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내용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 진로교육의 중요 내용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내용 N(%)

배경변인	항목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성별	남	34(23.1)	47(32.0)	34(23.1)	28(19.0)	4(2.8)	
	여	17(21.8)	14(17.9)	17(21.8)	20(25.6)	10(12.8)	68	
과정별	중	11(15.5)	23(32.4)	8(11.3)	19(26.8)	10(14.1)	61	21.108***
	고등	40(26.0)	38(24.7)	43(27.9)	29(18.8)	4(2.6)	150	
시력 정도별	맹	21(23.1)	21(23.1)	28(30.8)	17(18.7)	4(4.4)	87	6.677
	저시력	30(22.4)	40(29.9)	23(17.2)	31(23.1)	10(7.5)	124	
손상 시기별	선천성	39(26.4)	40(29.9)	34(23.0)	29(19.6)	6(4.1)	142(100)	6.490
	후천성	12(15.6)	21(27.0)	17(22.1)	19(24.7)	8(10.4)	69	
전	체	51(22.7)	61(27.1)	51(22.7)	48(21.3)	14(6.2)	211	

p<.01 *p<.001

- ① 자기이해를 위한 내용
- ② 직업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
- ③ 진학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
- ④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
- ⑤ 기타

위의 <표 4>에서와 같이, 진로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를 보면, ‘직업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27.1%)’, 그 다음으로 ‘자기이해를 위한 내용’과 ‘진학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22.7%)’이,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21.3%)’, ‘기타(6.2%)’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에서 남학생은 진로교육에서 ‘직업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32.0%)’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기이해를 위한 내용’과 ‘진학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23.1%)’이 동등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25.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기이해를 위한 내용’과 ‘진학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21.8%)’이 동등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과정별에서 중학생은 ‘직업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32.4%)’이, 그 다음으로는 ‘진로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26.8%)’, ‘자기이해를 위한 내용(15.5%)’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진학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27.9%)’이 가장 높았으며, ‘자기이해를 위한 내용(26.0%)’, ‘직업정보 탐색을 위한 내용(24.7%)’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유의미차가 나타났다. 이외 시력정도별과 손상시기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반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박은아, 2005; 이계순, 2010)에서 남·여학생 모두가 ‘자기 이해를 위한 능력’이 가장 높은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시각장애학교 여학생과 중학생은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직업정보를 탐색을 위한 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학생의 경우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진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시각장애학생의 경우 시각적 제한으로 인해 자신에게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한 직업정보탐색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진로교육의 중요 요소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 진로교육의 중요 요소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진로교육의 중요 요소 N(%)

배경변인		항목	능력과 적성	좋은 기술	많은 지식	직업에 대한 사명감	기타	전체	χ^2
성별	남		70(47.6)	27(18.4)	32(21.8)	9(6.1)	9(6.1)	138	15.045**
	여		38(48.7)	12(15.4)	6(7.7)	15(19.2)	7(9.0)	71	
과정별	중		37(52.1)	11(15.5)	7(9.9)	8(11.3)	8(11.3)	63	6.159
	고등		71(46.1)	28(18.2)	31(20.1)	16(10.4)	8(5.2)	146	
시력 정도별	맹		50(54.9)	15(16.5)	15(16.5)	6(6.6)	5(5.5)	86(100)	4.552
	저시력		58(43.3)	24(17.9)	23(17.2)	18(13.4)	11(8.2)	123(100)	
손상 시기별	선천성		78(52.7)	26(17.6)	23(15.5)	12(8.1)	9(6.1)	139(100)	5.771
	후천성		30(39.0)	13(16.9)	15(19.5)	12(15.6)	7(9.1)	70(100)	
전체			108(48.0)	39(17.3)	38(16.9)	24(10.7)	16(7.1)	209(100)	

**p < .01

위의 <표 5>에 의하면, 직무수행에 있어 진로교육의 중요 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전체 결과는 ‘능력과 적성(48.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좋은 기술(17.3%)’, ‘많은 지식(16.9%)’, ‘직업에 대한 사명감(10.7%)’, ‘기타(7.1%)’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경변인별는 성별의 경우 남학생은 ‘능력과 적성(47.6%)’이 가장 높았으며, ‘많은 지식(21.8%)’, ‘좋은 기술(18.4%)’,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6.1%)’과 ‘기타(6.1%)’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능력과 적성(48.7%)’이, 그 다음에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19.2%)’, ‘좋은 기술(15.4%)’, ‘기타(9.0%)’, ‘많은 지식(7.7%)’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차이를 보였다. 이 외의 각 배경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결과는 일반중학교 진로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이현정, 1999)와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채수영, 2006)결과에서 ‘능력과 적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여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이나 일반학교 중등학생 모두가 진로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능력과 적성’을 가장 높게 인식 것으로 볼 때, 다양한 인성과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진로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진로교육의 연간 필요 시간

시각장애 중등학생 진로교육의 연간 필요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진로교육의 연간 필요 시간 N(%)

배경변인		항목	1주일에1시간	1달에1시간	중간,기말고사후	1학기에1시간	학교의특별행사때마다	전체	χ^2
성별	남		50(34.0)	35(23.8)	23(15.6)	17(11.6)	22(15.0)	125	3.804
	여		24(30.8)	17(21.8)	19(24.4)	5(6.4)	13(16.7)	65(100)	
과정별	중		24(33.8)	18(25.4)	9(12.7)	8(11.3)	12(16.9)	59(100)	2.602
	고등		50(32.5)	34(22.1)	33(21.4)	14(9.1)	23(14.9)	154(100)	
시력 정도별	맹		33(36.3)	17(18.7)	18(19.8)	10(11.0)	13(14.3)	78(100)	2.316
	저시력		41(30.6)	35(26.1)	24(17.9)	12(9.0)	22(16.4)	112(100)	
손상 시기별	선천성		48(32.4)	37(25.0)	27(18.2)	13(8.8)	23(15.5)	125(100)	1.174
	후천성		26(33.8)	15(19.5)	15(19.5)	9(11.7)	12(15.5)	65(100)	
전체			74(32.9)	52(23.1)	42(18.7)	22(9.8)	35(15.6)	190(100)	

<표 6>과 같이, 진로교육의 연간 필요시간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는 ‘1주일에 1시간(3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달에 1시간(23.1%)’,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후(18.7%)’, ‘학교의 특별행사 때마다(15.6%)’, ‘1학기에 1시간(9.8%)’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배경변인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5항목 중 ‘1주일에 1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 중, 진로교육에 대한 일반학교 중학생의 인식(이계순, 2010) 연구결과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5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배치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1주일에 1시간’에 대한 선호를 분석해 보면, 진로교육의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시수변경과 시각장애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에 따라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의 인식결과로 판단된다.

5)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시기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시기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시기 N(%)

배경변인	항목	일반교과 수업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방학기간	전체	χ^2
	성별	남	38(25.9)	48(32.7)	21(14.3)	24(16.3)	16(10.9)	
	여	26(33.3)	31(39.7)	9(11.5)	7(9.0)	5(6.4)	73	
과정별	중	23(32.4)	19(26.8)	8(11.3)	13(18.3)	8(11.3)	63(100)	4.923
	고등	41(26.6)	60(39.0)	22(14.3)	18(11.7)	13(8.4)	141(100)	
시력 정도별	맹	27(29.7)	25(27.5)	13(14.3)	13(14.3)	13(14.3)	78(100)	6.768
	저시력	37(27.6)	54(40.3)	17(12.7)	18(13.4)	8(6.0)	126(100)	
손상 시기별	선천성	46(31.1)	51(34.5)	20(13.5)	18(12.2)	13(8.8)	135(100)	2.079
	후천성	18(23.4)	28(36.4)	10(13.0)	13(16.9)	8(10.4)	69(100)	
전 체		64(28.4)	79(35.1)	30(13.3)	31(13.8)	21(9.3)	204(100)	

<표 7>을 보면, 진로교육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대한 전체 응답은 ‘창의적 재량활동시간(35.1%)’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반교과 수업시간(28.4%)’, ‘동아리 활동시간(13.8%)’, ‘특별활동시간(13.3%)’, 마지막으로 ‘방학기간(9.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경변인별로는 각 항목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계순, 2010; 차복순, 2009)결과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을 가장 높게 선호하는 것과는 일치하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진학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이금술, 2013)결과에서 ‘진로와 직업교과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배치된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과 일반학교 중학생들은 평소 학기 중의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6) 효과적인 진로교육 담당교사

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효과적인 진로교육 담당교사 N(%)

배경변인	항목	진로교육 전문상담 교사	교과담당 교사	담임교사	교내상담 교사	취업한 학교선배	전체	χ^2
성별	남	66(44.9)	14(9.5)	31(21.1)	9(6.1)	27(18.4)	120	1.130
	여	35(44.9)	8(10.3)	20(25.6)	4(5.1)	11(14.1)	67(100)	
과정별	중	31(43.7)	6(8.5)	16(22.5)	5(7.0)	13(18.3)	58(100)	.634
	고등	70(45.5)	16(10.4)	35(22.7)	8(5.2)	25(16.2)	129(100)	
시력 정도별	맹	44(48.4)	10(11.0)	16(17.6)	5(5.5)	16(17.6)	75(100)	2.445
	저시력	57(42.5)	12(9.0)	35(26.1)	8(6.0)	22(16.4)	112(100)	
손상 시기별	선천성	68(45.9)	14(9.5)	29(19.6)	8(5.4)	29(19.6)	119(100)	3.932
	후천성	33(42.9)	8(10.4)	22(28.6)	5(6.5)	9(11.7)	68(100)	
전 체		101(44.9)	22(9.8)	51(22.7)	13(5.8)	38(16.9)	187(100)	

위의 <표 8>에서처럼, 효과적인 진로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는 ‘진로교육전문 상담교사(44.9%)’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담임교사(22.7%)’, ‘취업한 학교선배(16.9%)’, ‘교과담당교사(9.8%)’, ‘교내상담교사(5.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경변인별로는 모두 ‘진로교육 전문 담당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계순, 2010; 차복순, 2009)의 결과와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진학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이금술, 2013)에서 모두 ‘진로교육 전문교사와의 상담’을 선호하는 것과는 일치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주 접하거나 친근한 교사보다는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자료나 상담능력을 가진 교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효과적인 진로교육 자료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자료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효과적인 진로교육 자료 N(%)

배경변인	항목	진로관련 도서	주기적인 상담	각종 동영상	강의식 수업	기타	전체	χ^2
성별	남	31(21.1)	70(47.6)	21(14.3)	18(12.2)	7(4.8)	140	13.429**
	여	3(3.8)	39(50.0)	15(19.2)	16(20.5)	5(6.4)	73(100)	
과정별	중	11(15.5)	24(33.8)	13(18.3)	15(21.1)	8(11.3)	63(100)	14.280**
	고등	23(14.9)	85(55.2)	23(14.9)	19(12.3)	4(2.6)	150(100)	
시력 정도별	맹	16(17.6)	41(45.1)	12(13.2)	16(17.6)	6(2.6)	85(100)	2.808
	저시력	18(13.4)	68(50.7)	24(17.9)	18(13.4)	6(4.5)	128(100)	
손상 시기별	선천성	21(14.2)	72(48.6)	21(14.2)	27(18.2)	7(4.7)	141(100)	4.236
	후천성	13(16.9)	37(48.1)	15(19.5)	7(9.1)	5(6.5)	72(100)	
전 체		34(15.1)	109(48.4)	36(16.0)	34(15.1)	12(5.3)	213(100)	

**p<.01

위의 <표 9>에서와 같이, 효과적인 진로교육 자료에 대한 전체 응답결과는 ‘주기적인 상담(48.4%)’이 가장 높았으며, ‘각종 동영상(16.0%)’, ‘진로관련도서(15.1%)’와 ‘강의식 수업(15.1%)’이 동등하게 조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5.3%)’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서 ‘주기적인 상담’이 남학생은 47.6%, 여학생은 50.0%, 과정별에서는 중학생이 33.8%, 고등학생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 배경변인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교육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이계순, 2010)에서 ‘동영상 자료’를 가장 선호하는 것과 고등학생 진로의식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에 대한 고찰(조정미, 2009)에서 ‘인터넷’의 자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과는 배치된다. 위 결과를 분석해 보면, 시각장애학생들은 시각적인 제한으로 인해 동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시각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맨투맨으로 주기적인 상담을 가장 효과적인 자료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학교 중등학생들은 스스로 동영상자료나 인터넷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장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자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실태

1) 장래 희망

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 경로

시각장애 중등학생 진로교육의 정보경로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 경로 N(%)

배경변인 \ 항목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성별	남	14(9.5)	48(32.7)	47(32.0)	20(13.6)	18(12.2)	129	1.934
	여	8(10.3)	21(26.9)	31(39.7)	8(10.3)	10(12.8)	68(100)	
과정별	중	3(3.7)	28(34.6)	22(27.2)	20(24.7)	8(9.9)	73	6.617
	고등	19(12.3)	41(26.6)	56(36.4)	18(11.7)	20(13.0)	134	
시력 정도별	맹	9(9.9)	29(31.9)	35(38.5)	10(11.0)	8(8.8)	83	2.607
	저시력	13(9.7)	40(29.9)	43(32.1)	18(13.4)	20(14.9)	114	
손상 시기별	선천성	17(11.5)	46(31.1)	44(29.7)	22(14.9)	19(12.8)	129	6.446
	후천성	5(6.5)	23(29.9)	34(44.2)	6(7.8)	9(11.7)	68	
전 체		22(9.8)	69(30.7)	78(34.7)	28(12.4)	28(12.4)	197	

① 서적을 통하여 ② 부모님, 혹은 주위 어른들의 조언을 듣고
 ③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④ 매스컴을 통해서
 ⑤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교육의 정보 경로에 대한 전체 결과는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하여(34.7%)’, ‘부모님, 혹은 주위 어른들의 조언을 듣고(30.7%)’, ‘매스컴을 통해서(12.4%)’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12.4%)’, ‘서적(9.8%)’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배경변인별로는 각 항목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박은아, 2005; 이현정, 1999; 차복순, 2009)에서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가장 접하는 것과 고등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이금술, 2013; 조정미, 2009; 채수영, 2006)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과는 배치된다. 위의 결과를 볼 때, 일반학생들은 진로교육 등의 정보 획득 방법이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주로 습득하는 반면, 시각장애학생들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사들의 세심하고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 인식이 반영되므로,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시수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향후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방안

시각장애 중등학생의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에 대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방안 N(%)

배경변인		항목	①	②	③	④	⑤	전체	χ^2
성별	남		34(23.1)	37(25.2)	30(20.4)	16(10.9)	30(20.4)	117	1.615
	여		18(23.1)	17(21.8)	13(16.7)	12(15.4)	18(23.1)		
과정별	중		19(26.8)	16(22.5)	10(14.1)	9(12.7)	17(23.9)	54(100)	2.398
	고등		33(21.4)	38(24.7)	33(21.4)	19(12.3)	31(20.1)		
시력 정도별	맹		27(29.7)	14(15.4)	21(23.1)	7(7.7)	22(24.2)	69(100)	12.179*
	저시력		25(18.7)	40(29.9)	22(16.4)	21(15.7)	26(19.4)		
손상 시기별	선천성		37(25.0)	28(18.9)	32(21.6)	18(12.2)	33(22.3)	115(100)	6.962
	후천성		15(19.5)	26(33.8)	11(14.3)	10(13.0)	15(19.5)		
전체			52(23.1)	54(24.0)	43(19.1)	28(12.4)	48(21.3)	177(100)	

*p <.05

- ① 진로와 직업교과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 ② 진로교육 시수를 늘여 개별적인 지도까지 해 준다.
- ③ 진로교육 전담 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높인다.
- ④ 개발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간에 운영하여 흥미를 높인다.
- ⑤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내용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개발 능력을 향상시킨다.

위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교육이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전체 결과는 ‘진로교육 시수를 늘여 개별적인 지도까지 해 준다(24.0%)’, 그 다음으로는 ‘진로와 직업교과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한다(23.1%)’,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내용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개발 능력을 향상시킨다(21.3%)’, ‘진로교육 전담 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내용의 전문성을 높인다(19.1%)’, ‘개발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간에 운영하여 흥미를 높인다(12.4%)’순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시력정도별에서 맹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와 직업교과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한다(29.7%)’로 가장 높았고, 저시력학생의 경우에는 ‘진로교육 시수를 늘여 개별적인 지도까지 해 준다(29.9%)’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의 성별, 과정별, 손상시기별로 보았을 때는 유의미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이계순, 2010)에서 ‘실제적이고도 현실적인 내용으로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 능력을 향상 시킨다’가 가장 높은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전국 시각장애학교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진로교육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을 설문조사하여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에서 진로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맹학생의 경우 ‘자기가 하고 싶은 직종에 종사하며 살 수 있다’가, 저시력학생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가 가장 높다. 남학생은 ‘직업정보 탐색’, 여학생은 ‘진로계획 수립’을, 중학생은 ‘직업정보 탐색’, 고등학생은 ‘진학정보 탐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직업수행에서 남녀학생 모두 ‘능력과 적성’을 중요요소로, ‘주기적인 상담’을 남녀학생과 중·고등학생 모두 효과적인 진로교육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진로교육에 대한 실태에서 중학생은 ‘부모님과 의 진로상담’이, 고등학생은 ‘친구들 동료학생들과의 대화’가 자신의 장래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으로 맹학생은 ‘진로와 직업교과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한다’가, 저시력학생은 ‘진로교육 시수를 늘려 개별적인 지도까지 해준다’가 가장 높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개인 대면 상담’을 진로관련 상담으로 가장 선호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적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장애학교 중등학생의 진로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1995년 대학 특례입학제도가 시행된 후, 시각장애학생 적령학생의 약 70~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따라서 실패 없는 전공 선택을 위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법전편찬회(2013). **교육법전**. 서울 : (주) 교학사.
- 교육과학기술부(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2011년 학교 진로교육 현황조사결과**.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특수교육원(1999).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김경분(2010).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순(2006). 진로교육이 중학생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1991). **미래 사회와 진로 선택**. 서울: 배영사.
- 김택중(2001).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혜(1999). 중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지도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아(2005). 청소년의 진로 및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식(2006). 시각장애특수학교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경중(2006). 중학교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보람(2011). 개정 2009교육과정에서의 「진로와 직업」 교과목 운영 실태 분석.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기용(2008). 중학교의 진로 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석(2008).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발견 향상과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남희(2013). 화학 I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 성숙도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정(2004).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탐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술(2013). 일반계 고등학교 진로진학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순(2010). 진로교육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이수하(2006). 고등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철(2005). 시각장애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우(2010). **시각장애인의 진로교육과 재활**. 서울: 유연기획.
- 이해균(2006). 시각장애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 성향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1), 385-406.
- 이현정(1999). 중학교 진로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장기중 (2009). 중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순형 (2006).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정미 (2009). 고등학생 진로의식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복순 (2009). 중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수영 (2006).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우. (2010). 특수학교 고등부 학생의 진로·직업연구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인식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Sitlington, P, L., Neubert, D, A., & Clark, G, M (2009).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5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Awareness and Actual Condition of Career Education in Secondary Students with School for the Visual Impairments

Shin-young Lee

Daegu Kwangmyung School for the Blind

Hae-gyun Lee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elementary resource in developing efficient and active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the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The findings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ings.

First, for the main purpose of vocational educations, most blind students picked 'to engaged in the work that they like', while low-vision students picked 'to earn money to maintain one's life'. Asked abou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vocational programs, male students said 'job information', whereas female students said 'job planning'. However, when the answers were sorted by grade, middle schoolers usually said 'career information' and high schoolers said 'information on higher education'. Asked about the important things in job performance,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nswered 'proficiency and aptitude', and also they answered that 'counselling on regular basis' is essential for effective vocational education.

Second, in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vocational education in blind schools, when they were asked about the decisive factor to choose future job, middle schoolers said 'conversation with parents' whereas high schoolers said 'conversation with peer group'. For the method to enhance efficiency in job education, blind students said 'more systematical teaching as more students apply for the subject', and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preferred 'face to face conversation' as the best way of job counselling.

Key Words : Secondary Students with School for the Visual Impairments,
Career Education

논문 접수: 2014. 10. 27 심사 시작: 2014. 11. 10 게재 확정: 2014. 12. 22